聖 句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1장 38절)

교 시
진 리
평 화
자 유

全州大新聞

발행인(代)嚴 英 鎭
주 간 元 漢 植
편집국장 李 仁 豪

발 행 소
전주시 효자동 3가1200
全州大新聞社
전화 (80) 2 4 4 1 ~ 2
우편번호 560-759

제298호

1988년10월20일(목요일) (1965. 5. 15창간) THE JEONJU UNIVERSITY PRESS (1986년8월27일 문공부등록 다-410)(1985년12월31일제3종우편물(나)급인가) 〈주간〉〈1〉

교수논단

企業家精神의 決定要因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기업가상도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Ⅰ. 서 론

초기의 한국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창업과 모험 속에서 정부의 강력한 성장 우선정책에 의한 지원과 보호아래 발전되었다. 성장기의 기업은 한국경제전반의 순조로운 성장과 정부의 지원이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기업은 성장단계를 넘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가상도 새도운 면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시기를 맞게 됐다. 그래서 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가들은 이러한 시대로 전환하려면 사회적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체제로 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해촉는 기업유형을 먼저 분류하고 동시에 유형별 기업가정신의 결

전 영 상
상업교육과 부교수

정요인을 환경, 조직구조, 전략수립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주체가 되는 기업가와 산업민주화 실현의 주역인 기업가들의 바탕지한 기업가정신의 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슘페터 (J. A. Schumpeter)는 교환경제내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가』들을 기업가라고 하며 그 기능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전부를 일컫는 것이다.

신성장 (山城章) 교수는 사회성, 공익성, 공공성의 세가지 측면에서 전문별 기능적 책임, 이해집단의 이익이 균형있는 분배, 안간섭 존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업가는 협동의 통일이념하에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자를 말하며, 기업가정신이란 경영자들은 발명적이고 신축성있게 모험적, 창의적, 성장지향적인 자질을 소유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기업가 정신의 생성배경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3기로 구분하여 첫째, 개화기 둘째, 식민지지배하 세째, 해방후의 기업가정신으로 하여 기업가의 행동양식에 따른 시대적 특징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화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자본이 영세로 말미암아 경쟁력이 약했다. 또한 기술자의 결핍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시대적인 여건아래서는 성공할수 없었으나 민족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들의 정신은 단지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개화운동정신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식민지배하에서는 3·1운동 이후에 민족기업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일본정부의 대한 정책의 전환, 민족주의의 자세가 전환, 토지조사사업의 완료로 자주자본이 기업자본에 동원될 수 있었다는 점과 개화기를 통한 근대교육의 보급및 계몽운동의 효과로 말미암아 민족기업의 정신적 자세와 행동양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였다. 해방후에는 정치·정책·사회의 모든면에서 혼란기였으나 1968년부터 기업의 문제점과 기업의 성장결과로서 기업은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경영철학이 싹이 트면서 대두하게 되었다.

3. 외국의 기업가 정신의 생성배경

미국에 있어서의 기업가정신은 1810년대의 지배적인 농업사회의 시대에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시·공간적으로 적절한 광물질, 원자재 부족으로 수동상산이 지연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기업가들은 많은 기술도입을 하여 아금산업, 기계도구산업, 동력장비 산업에 기술혁신이 나타나게 되었고 기술 및 과학적 혁신자의 발전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경제적 기회를 맞이함으로서 기업가정신이 생성하게 되었다.

日本에 있어서는 명치정부가 세워진후 정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성장하게 되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강력한 보호아래 기업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기업가정신이 기회조건과 정부의 역할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직접적으로 필요한 만한 지원과 더불어 풍부한 노동력, 고수준의 기술숙련이 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4. 기업유형및 기업가 정신 결정요인

(1) 단순기업

단순기업은 동질적 환경에서 활동하며 소규졍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소규모기업이다. 단순기업을 조직구조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기술구조나 지원스텝도 없고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분산화가 되었으며 단위들 사이에 차별화가 극소하고 또한 중간층의 계층이 적은 단순기업이다. 단순구조의 환경은 동시에 단순하고 동적인 경향이 있는 경우와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서 전략수립유형이 이루어 진다.

(3) 유기적 기업

이 기업은 조직구조면으로 보면 민즈버그가 주장하는 애드호크라시 (adhocracies) 조직에 기인하고 있다. 애드호크라시조직이란 1968년부터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의하여 많은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명확한 선택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을 말하는데 이것은 美國에서 처음으로 조직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현재까지 널리 알려지고 있다. 애드호크라시 특징은 일반적 낮은 수준의 집권화,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유기적 구조의 환경은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산업사회의 복잡화가 이루어짐으로서 기업이 그러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즉 그때그때 상황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구조를 갖는다. 이 기업의 전략수립에 있어서는 적응성 유형에 기인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들은 적응성 유형을 구별해 준다.

첫째 적응성 조직에는 뚜렷한 목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적응성 유형에서 전략형성과정이 새로운 기회들을 위한 형식적 탐색보다는 오히려 현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반응적인 해답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 세째, 적응성 조직은 이익이 있고 연속적인 단계에서 결정을 한다. 네째, 체계가 서있지 않는결정들이 적응성 조직의 특징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에 따라 유기적 기업이 있기때문에 기업가적인 노력은 환경의 요구와 조직구조의 능력을 반영하게 된다.

(4) 기업가 정신의 결정 요인

학자들마다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에 대해 상이한 중점을 두고 기업가의 권력에 있어서도 논쟁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유형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중요요인들즉 환경, 조직, 전략의 요인들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①단순기업과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

첫째, 환경문제이다. 환경은 다시 동태성, 이종성, 적개성 등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는데 단순기업에서는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조직의 문제보다는 덜 유의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단순기업에서는 참임이 용이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조직이 환경보다는 훨씬 능가하고 있다.

둘째, 조직 문제이다. 이는 단순기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유의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규모가 적고 참임이 용이하고 시장의 경쟁이 격심하여 경쟁자의 위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leader의 태도 내지 행동에 따라 기업의 경영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째, 전략문제이다. 이기업에서는 분석적이기 보다는 직감적인 경향이 있으며 전략수립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된다. 즉 단순기업에서의 전략이 지원스텝이나 기술적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며 전략 계획보다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촛점이 있다. 따라서 분석적이고 미래지향적, 통합적 전략은 아무런 유의관계가 없고 오로지 리이더의 개성 및 지식에 따라 기업이 관장되고 있다.

②계획기업과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

첫째 환경문제이다. 이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측 가능한 환경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고 기계와 같은 조화를 가지고 기능을 발휘한다. 그 이유는 안정적이며 통부성이 있는 환경과 많은 여유자원이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조직문제이다. 기업가가 그의 임무를 위임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독창적인 기술이나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전략을 발전시키게 되는 기업이다. 반면에 관리자는 자치화된 의사결정 관리자로서 보다는 기능적 전문가로 취급된 단일기업 조직이다.

세째 전략문제이다. 경영자는 능률과 활동의 안전성 추구와 생산기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독립적으로서 기업가는 제품-시장의 현신과 질서있는 방법으로 기업가적 활동을 중합한 필요성을 갖는다. 그래서 리더한 행동은 전략의 명확성에 의해 기업가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환경조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 지는데 특히 전략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③유기적기업과 기업가 정신의 결정요인

첫째 조직문제이다. 이 기업에 있어서는 대부분 분권화 즉 권한이양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의사결정권한이 포괄적으로 대폭 사업부의 장에서 위임되고 독립회사와 같은 자주적, 독립재산제 경영이 확립된다.

둘째, 환경문제이다. 계획기업과는 달리 적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가적 활동수준을 환경의 요구에 적응시킨으로서 혁신적및 기업가적 반응이 나타난다.

세째 전략문제이다. 이 기업에 있어서 명확하고 미래의 방향에 대한 종합적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조화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전략은 분산된 목표를 확립하게 하며 이들 합치된 기업가적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기업에 있어서 결정요인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과 조직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Ⅲ. 결 론

한국의 기업유형을 단순기업, 계획기업, 유기적 기업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기업가정신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환경, 조직구조, 전략요인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과 조직구조 및 기업전략이 기업의 유형간의 차이에서 단순기업은 조직면에서 그 조직을 리드 (load)하는 리이더 (leader)에 의존성이 크며, 계획기업은 경영자가 제품과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킬수 있는 전략의 명확성에 의존성이 크며 유기적 기업은 조직구성원간에 팀멀위하고 개방적인 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적 구조에 의존성이 크다.

둘째, 환경, 조직구조, 기업전략간의 상호의존성을 요인 분석에 의해 최빈빈 평균 단순기업에서의 결정요인은 기업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리이더쉽이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계획기업의 경우는 전략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환경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도 나타났다. 유기적 기업의 경우는 애드호크라시조직에 의하여 전문가들 관리자들의 활동에 의해 혁신적 아이디어와 개방적인 내부의사소통을 활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직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세째, 기업가정신과 추출된 요인과의 정준상관 결과에 있어서 단순기업은 기업가의 개성이 강조되고 계획기업은 전략적 요인이 강조되었다. 유기적 기업에서는 기업의 조직구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직은 기업가 정신의 중요 요인

기업가 정신이란 모험적, 창의적, 성장 지향적인 자질을 소유하는 것

世流一針

以佚道使民하고 以生道殺民하라

K형

정치권력의 정통성 (Legitimacy) 이라는 말이 있지요. 정통성이란 정부측에서 통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그러한 권리를 피통치자 (被統治者) 도 어느 정도 승인함으로써 행사되는 통치권력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국민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 (社稷) 이 그 다음이요, 임금이 가장 가볍다。그렇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가 된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 得此丘民而爲天子) 는 맹자의 말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국민의 의견에서 정치권력자를 승인하고 복종하며 통치체제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옳고 정당한 일이다라는 신념으로부터 지배체제에 대한 지지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정통성이 있다는 의식을 주입시키는 경이아말로 정치권력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시」 하는 일이되는 것이지요.

K형!

우리가 그토록 군부지배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적 민간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외쳐대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보다 정통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지요. 군사정권은 비록 그 체제의 출범이 표면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요식행위에 그칠 뿐, 기본적으로는 무력에 의한 정권의 장악과 그 유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한말이지 어느 정치인의 독설처럼 태어나서는 아니될 정권인지도 모릅니다. 군사정권에 대합하는 민중세력이 그러한 정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체제주도세력조차 의견상으로는 정통성의 결핍을 부정하지만 내심은 「항상 불안하며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모두 군사정권이 하나의 통치체제로서 제도화될 수 없다는 근거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모든 군부세력들 정통성의 결핍을 절감하고, 이것을 보완하고자 현실정치에 대한 군부간여의 불기피성을 강조하는 한편, 체제의 과정 즉 정책과정의 개발과 그 심사숙고 종합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에 진력하게 되는 것이지요。이땅에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단초를 연 5.16이 『물질과 기아선상에서 헤맸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라는 구호아래 정력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한편, 『그동안 우리 사회 저변에 깊이 뿌리박고 사회기강과 안녕질서를 문란시켜 왔던 폭력, 사기, 밀수, 마약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일제 소탕한다』는 명분아래 5.16의 「국토건설단」과 80년대의 「삼청교육대」를 급조하였던 것은 모두가 결핍된 정당성을 만회해 보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정부」가 되지는 못할 망정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정부」라도 되자는 독재정권 특유의 그럴듯한 몸부림 말입니다。

그러나 K형,

군사정권이 안고있는 정당성의 위기극복과 체제안정 그리고 정치질서의 제도화는 끝내 이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며 교훈이라고 엄연을 토하던 일이 생각나시지요? 70년대에 있었던 프랑코체제의 붕괴와 80년대에 들어 연쇄반응적으로 진척된 라틴아메리카 군정체제의 붕괴 및 민주주의로의 선회가 이 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는 말을 신나게 떠들어 대던 일 말입니다。

굳주인 배를 채워주고, 껍질들을 소탕하여 안락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읍니까? 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심으론 반대하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혹시나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기대했었읍니까? 그러나 번번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또 속았다는 분노와 허탈감 뿐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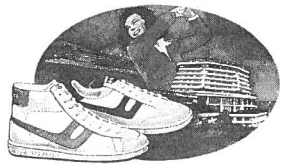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명분과 의도로 그리고 누가 보아도 훌륭한 명령체계와 조직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지기도취적 환상 속에서, 결차보다는 목적 만을 강조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내세우려고 할 경우 그 명분과 의도마저 의심받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목적을 관안케 하는 방법으로써 맹성을 부린다면 비록 힘이 들더라도 원망치 않으며, 살려 주는 방법으로써 맹성을 죽게 한다면 비록 즉려라도 죽임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以佚道使民, 雖勞, 不怨。以生道殺民, 雖死, 不怨殺者。)」라는 맹자의 말을, 그저 지난 날의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지나쳐 버려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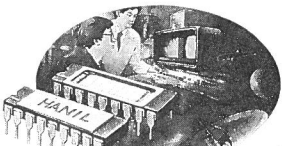
〈鼎門〉

한올의 실에서 첨단 반도체까지-韓一그룹
작은 뜻을 모아 큰 일을 이루는 한일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읍니다.

섬유·화학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세계 최대규모의 아크릴 생산을 자랑하는 한일합섬,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고급복지 전문메이커 경남모직 등으로 세계속에 성화한국을 심어온 한일그룹 — 이형단면사·도전성섬유 등을 개발해 화학섬유 분야에서 특기적인 성과를 거둔 한일그룹은 신소재섬유·고분자제료·정밀화학분야에도 척극 참여,풍요로운 생활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해 생활을 건강하게
스포츠제품과학연구센타를 운영,품질개선·소재개발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일그룹 — 한국의 상표 프로스펙스로 스포츠과학을 실현,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하얀트 리젠시 제주와 무산,동도관트리관련 등의 휴양시설과 레저공간을 갖추고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연구개발'(R & D)센타' 설립을 통해 21세기 기술집약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한일그룹 — 각종 통신연자제품 분야에 관여하여 국산화를 제고해 기여하고 있는 한일그룹은 국제적으로도 초기기술단계에 있는 갈륨비소(GaAs)반도체 및 광통신소재 생산을 추진,고도 정보화시대를 겨냥한 편리한 생활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韓一그룹 • 한일합섬 • 국제상사 • 경남모직 • 동서섬유화학 • 부국증권 • 하얀트리젠시-제주 • 하얀트리젠시-부산 • 진해화학 • 룡도컨트리 • 한효건설 • 한효개발 • 연합울산

사 설

학내문제가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6월항쟁 이후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커다란 변화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목소리와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일련의 민주화조치 끝에 이루어진 요즈음의 국정감사활동을 보고 있노라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해 온 우리의 모습에 그저 아연해 할 정도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는 5공관련 비리와 부정 그리고 범죄행위를 보고 들을 때마다 경악과 분노를 나타내기 전에, 정말 우리사회가 이렇게까지 민주화되었 것인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드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를 위한 진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가지 서럽고 슬픈 것은 「5공비리」라는 이름으로 들추어 지는 지난 7년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요즈음의 언론은 마치 전두환씨와 그 일가라는 사람들의 한 짓이 파렴치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부도덕하다는 보도를 매일 매일 떠들어 대고 있으나 과연 그렇게 용감하게 떠들어 대고 있는 언론이 지난 7년 동안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은 아닐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국가에서 큰머슴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 몇몇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가? 적어도 그러한 부정과 비리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니었는지? 조금은 염통한 소리 일 갚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누구를 탓하고 분개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일에 대한 나의 책임은 없었는지를 되새겨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번 다시는 그러한 부정과 비리가 일어날 수 없게끔 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우리 전주대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장잠했던 학내문제가 예상했던 대로 서서히 재연되고 있으며, 더구나 일부 학생들은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로서 본교재단 및 학교운영에 관한 비리를 수집하여 폭로하였다니, 그러한 폭로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따나 몇년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어 올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자조와 자괴가 앞서는 것은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마땅히 밝혀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또 비리와 부정에 대한 폭로가 근거없는 유언비어이고 중상모략이라면 그런대로 밝혀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못하게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당국이나 재단에서는 일부 학생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음해임을 귀찮게 여기어 피하기만 하거나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며 또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맞서서 그간의 경위와 사정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혀줌으로써 적어도 면학에 힘쓰고자하는 많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학내문제에 관한 한 이제는 모두가 지친 상태이다. 때문에 이월수록 학교당국과 재단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함으로써 다시 재연될 기미가 보이는 불씨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저버려야할 것이다.

대학만평

작년에 왔던 작설이가…

기획시리즈 해방후의 무장 투쟁사-(마지막회) 민중운동의 성격과 의의

Ⅰ

본지에 5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해방후의 무장 투쟁사」(①대구 민중항쟁사 ②제주도 4.3민중항쟁 ③여·순항쟁 ④민중조직의 와해와 한국전쟁 ⑤광주 민중항쟁)의 기획시리즈를 주의깊게 읽었다. 압제자와 권력측에 의해 무작정 압죽되어져 버린 민중항쟁의 의미를 새로이 되찾고 민주화·자주화·통일의 불씨를 기껴이 밝혔드는 민중의식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소견을 나열하는 것이라 하겠다.

해방이후의 역사적 과제는 식민지 유산의 청산과 자주적 민주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러나 연이은 외세의 침포와 집권세력의 만행, 그리고 분단 전후 상황은 민족의 역사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민족모순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로부터 한국의 자주적 능력의 취약성과 강대국의 실리에 의한 비극적인 분단 고착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지 44년. 민중이 주체가 되어온 민족운동의 역사로 (歷史路)에 서서, 우리시대가 겪고있는 민중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중의 개념과 관계된 민중운동의 역할을 나름대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Ⅱ-①

지배집단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가 민중주의를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비록 민중운동이라고 명명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민중의식과 민중운동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삶아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1811년 홍경래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땅에 나타나기 시작한 민중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당시의 부패한 지배집단을 겨냥하여 분탁한 양반과 농민, 노동자가 봉기의 주체로 된 민중의 거센 물결은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여러 민란들로 이어진다. 민중은 관군의 무자비한 초토화작전에 부딪쳐 막대한 희생을 치루면서도 기존체제의 부조리와 부당성을 더욱 날카롭게 의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반봉건적인 자주의식의 불을 화대시켜 나갔던 것이었다.

개항 이후 19세기말과 20세기초 우리 한국에도 제국주의라는 세계사의 바람이 거칠게 불어닥치기 시작했으며 그 때는 얼김의 제국주의 세력이 아직도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였다. 그러나 그러한 외세의 거센 바람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립과 자강 (自强)을 진지하게 생각한 민중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민중의 전형적인 모습을 동학혁명 속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민중세력들은 구미 사회안의 민주적 요소와 부국의 저력을 자세히 관찰하여 개화파 세력과 함께 역사의 전면에 서서 민족의 자립과 자주를 위한 개화의 바탕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결정적으로 체제안의 수구적인 보수세력과 일체화함이라는 외압에 의해 무산되었다.

36년간 일본제국주의의 사슬에 묶여 역사의 하인노릇을 했기에 이땅의 민중이 주인이 되는 주체에 역행하는 못 하였으나, 그들은 끊임없이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해 왔으니, 우리는 3.1 운동에서 그 숨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구조와 역사를 엮어야겠다고 자각한 민중의 세력은 과거에 위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승만 권위주의적 체제때문에 정치적으로 폭힘된 조국안에서 비록 민중이 완전한 주인노릇을 못했다 할지라도, 민중세력은 굽히지 않고 그들의 권리신장과 민주화를 위해 많아져 왔으며, 그 결과가 4.19의거로 나타난 것이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5.16은 이땅의 민중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조점다. 그러나 자유당 이태로 형상적으로나마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에의 열망을 키워온 토양속에서도 이 땅의 민중들은 민주화와 분단조국의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80년대의 광주항쟁처럼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으나, 작년에 이룩했던 6월항쟁은 가히 민중항쟁의 꽃이며 민중세력의 면에혁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 땅의 민중의 숨소리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울리고 있으며, 민중이 주인되는 그 역사적 흐름의 외지는 강인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이라는 개념은 여시 타힘이메리카의 현실속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수입해체 공업화와 민족주의적 발전 이데올로기가 폭짚지워지는 1930년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운동은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지배집단의 의도적인 계산과 정책의 결과가 민중주의를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하는 사회과정을 겪으면서 농업 중심적인 파꾸제를 공동의 적으로 하여 형성된 민중은 산업지향 기업가·노동자·중산층의 연합체였으나 산업화와 진정에 따라 노동자·농민 등을 중심으로한 민중운동이 급진성을 띠면서부터 산업가와 중산층은 이의 반작용으로 군부쿠데타를 지지하게 되고 민중연합은 차차 봉괴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중세력은 파꾸제의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운동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농업 국가로부터 근대적인 산업 국가에로의 이행이 민중정치의 기반위에서 전개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중은 계급에 의해 규정되었다기보다 남미에서는 정치의 새로운 집합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중의 개념을 두가지로 요약해 보면 그 첫째는, 민중을 생산노동자·도시빈민·농민 등으로 보는 구성개념하의 경제적 층위의 계급적 민중개념이다. 둘째로 민중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지배 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복합 집단들이다. 계급성을 탈피하여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민중개념으로, 보다 복합적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정치권력이 가장 큰 지배체계가 되고 있으므로 핵심적인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민중이다. 이 두개념은 각기 상반된 잠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듯하나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결합을 유기적으로 이루어 내야만 한다.

이렇듯이 민중이 일차적으로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민중은 이미 어느정도 꺼어있는 정치의식과 상징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인 것이다. 그런나 피집적인 정치문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민중의 생활사적 기반과 공동체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중을 일상적인 삶의 주체로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중시되어 가는데, 이 경우 민중은 서민으로 이해된다.

이런 접근 영역에서 볼때 민중을 구성하는 일차적인 중요 요인은 정치적 도순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운동이다. 이것은 각 영역의 외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열망을 지니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개선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집단들을 대신해서 이익을 대변해주고 의사를 표출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과 제도의 문제가 따른다. 그리고 민중을 정치적인 수준에서 규정짓고 접근하려 할 때에는 중간층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들은 여러 여건속에서 권위주의의 병폐를 가장 잘 실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항적 잠재력도 광범위하게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Ⅱ-②

해방후의 무장 투쟁사에서 다뤄졌던 굵직한 민중항쟁들은,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조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에서 민중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혁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의 분출을 철저히 좌절시키는데는 미군정이 수행한 근본적인 정책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다. 그중에서도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민중을 착취코자 위협의 요소로 작용했던 정책들은, 공산주의 세력의 진출을 막는 것, 미국의 국익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지도자로 키우는 것, 민중을 비롯한 민중해방세력을 약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미군정은 우리 사회안의 보수진영과 굳게 계휴하고 경찰력증강, 군대창설, 좌익탄압,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를 고립시키고 마침내 민중세력을 예속체제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해방이후 불꽃 튀면해 왔던 민족해방의 과제가 사회적 모순속으로 침체되어 갔지만 모두가 그 모순의 극복주체임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이 주체자들에 의한 능동적 대처로 민중에 의한 지역적 무장항쟁들이 전개되면서 시대를 꿈이쳐 흘러 내렸다.

〈지난해 6월항쟁을 벌이고 있는 민중들〉

광복직후의 남반부 사회는 지배적 조건들을 반영한 대구민주항쟁과는 달리, 제주 4·3 민주항쟁과 여·순항쟁은 계획이었고 명령이 관철된 폭정이라는 특징을 지니면서 지역 대중에 대한 토대는 구축했지만, 전국적인 대중적 지지는 받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지배권력측이 민중항쟁의 계기를 부여하여 민중운동의 진출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였다. 이 항쟁들은 반제반봉건투쟁으로 '사회혁명의 장하도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민중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마는 이데올로기의 반역사성을 가져오고 말았다. 여기에 냉전체제 사이의 두 모순으로 대체되고 외부로부터 강요된 분단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남한의 민중운동을 침체시킴과 민중운동 이데올로기의 차단,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사회경제제도를 합한 민중해위가 한갑내야 왔다. 광주민주항쟁으로 자생적인 대중한압의 계기를 부여하여 민중운동의 진출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였다. 이 항쟁들은 반제반봉건투쟁으로 '사회혁명의 장하도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민중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마는 이데올로기의 반역사성을 가져오고 말았다. 여기에 냉전체제 사이의 두 모순으로 대체되고 외부로부터 강요된 분단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남한의 민중운동을 침체시킴과 민중운동 이데올로기의 차단,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사회경제제도를 합한 민중해위가 한갑내야 왔다.

Ⅲ

해방과 더불어 민중들에게 있어 왕전한 해방으로 갈구되었던 요청들은, 폭압된 독립국가의 수립과 일제시대에 구축된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안에 예속적 체제가 세워지고 주요한 사회변화의 모순으로 그 이전의 우리민족이 가야했던 길과 남한의 민중이 가야할 길이 서로 다르게 되었다.

〈지난해 6월항쟁을 벌이고 있는 민중들〉

중의 주체적 역량이 밝히되고 뚜기한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나라의 민주화와 자주화는 물론 통일의 문제도 관심이 현명되었다.

이러한 각지역적 항쟁들의 구심점은 무엇보다도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민중이 압박으로 역사와 구조의 주인이 되려했다는 민중의지를 표현해 내고 실제로 시대적 요구를 민중의 것으로 실현하기 위해 속고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Ⅲ

해방과 더불어 민중들에게 있어 왕전한 해방으로 갈구되었던 요청들은, 폭압된 독립국가의 수립과 일제시대에 구축된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안에 예속적 체제가 세워지고 주요한 사회변화의 모순으로 그 이전의 우리민족이 가야했던 길과 남한의 민중이 가야할 길이 서로 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웅징하라는 것이었다. 거기다 전두환씨는 광주학살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닌가?

그런데도 스스로 나서서 제법 울먹이는 표정까지 하고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이씨의 모습을 볼 때 어이없다 못해 가련하기까지 하다. 이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씨의 말대로 「외국에 한 평의 땅도 한 푼의 돈도 없다」는 발언은 분명 그 진위가 밝혀져야 할은 물론 5공화국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전씨와 이씨가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만으로 마무리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전두환씨와 이순자씨, 그리고 이들의 등에 업혀 치부에 여념한 일가친지들은 물론 그들을 돕거나 끊고 한 사람들까지 모두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만 절대권력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다. 〈柄燾〉

斷想

부패한 절대권력의 최후의 발악(?)

제5공화국 7년동안 청와대의 안주인으로 여태 어느 영부인보다 화려한 나날들을 보냈던 이순자씨가 대통령 영부인 자리에서 물러난지 8개월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지난 14일 새새대 육영회의 대의원총회에 그 모습을 드러낸 이순자씨는 「희끔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통해 자신이 이 단체의 최장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밝히면서 그동안 수 개월에 걸쳐 자신을 신랄하게 비난한 언론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자신의 남편인 전두환씨와 자신은 「외국에 한평의 땅도 한 푼의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순자씨는 또 새세대 육영회와 심장재단이 엄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공정하게 기금을 운영했는가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바고 있는 이유있는 분들의 정성을 모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이것이 곧 소득의 재분배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새세대 육영회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고 노력한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고 자신의 처부는 전혀 없었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며 목청을 돋구어 철저히 진위를 파헤쳐 달라고 덧붙여 말했다.

우리는 이같은 이씨의 발언을 접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파렴치해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부패한 절대권력이 최후의 발악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청하면서 스스로 파멸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씨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온국민이 그와 그의 일가친지에 대한 부정과 비리를 응징하라고 주장한 것은 새세대 육영회나 심장재단의 비리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씨의 형제, 조카는 물론 사돈과 사돈네 팔촌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사와 이권에 끼어들고 이순자씨 또한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물론 동생까지 나서서 국민경제가 파탄에 빠질 정도로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웅징하라는 것이었다. 거기다 전두환씨는 광주학살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닌가?

그런데도 스스로 나서서 제법 울먹이는 표정까지 하고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이씨의 모습을 볼 때 어이없다 못해 가련하기까지 하다. 이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씨의 말대로 「외국에 한 평의 땅도 한 푼의 돈도 없다」는 발언은 분명 그 진위가 밝혀져야 할은 물론 5공화국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전씨와 이씨가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만으로 마무리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전두환씨와 이순자씨, 그리고 이들의 등에 업혀 치부에 여념한 일가친지들은 물론 그들을 돕거나 끊고 한 사람들까지 모두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만 절대권력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다. 〈柄燾〉

도약하는 진로그룹의 미래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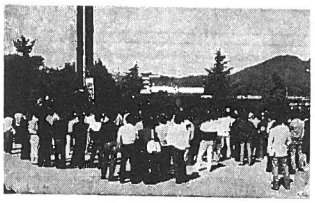
거의 1세기에 걸쳐 주류문화를 선도해 온 민족기업 진로가 마침내 미래를 향해 도약하기 시작했읍니다.
삶을 지켜주는 생명공학에서부터 참단신소재, 금융, 무역, 기간산업에 이르기까지
진로그룹이 펼치는 사업은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 입니다.

진로그룹이 펼치는 사업분야
첨단신업/금융/건설/하이테크/유통/레포츠/식·음료/문화복지

眞露그룹

(주)진로/(주)진로유통/진로위스키(주)/진로발효(주)/진로유리(주)/진로음료(주)/도원개발(주)/한국트럭터미널(주)/서울남부터미널(주)/서울건설산업(주)/진로종합식품(주)/학교법인우천학원/진로문화재단

학생회장 선거일정 공고



〈작년에 있었던 선거유세광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강철주) 에서는 지난 19일 학생회칙 제7조에 의거, 89학년도 총·여학생회장선거 및 각 단대학생회장선거에 대한 사항을 공고 발표했다.

이 공고에 의한 각 학생회장 입후보자 자격요건 및 은 자 (총학생회장—500명, 총여학생회장—200명, 단대학생회장—소속 10분의 1이상)

◇구비서류

▲등록원서 1부 ▲추천서명서 ▲재학증명서 1통 및 성적증명서 1통 ▲사진 3매 (5cm×7cm) ▲선거공약 및 슬로건 ▲이력서와 소개서 ▲선거사무장 및 참모진 명단

◇선거일

▲총·여학생회장선거 : 88년 11월 9일 ▲각 단대학생회장선거 : 88년11월10일.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존의 획폐적이고 전근대적인 선거풍토를 탈피하여 정의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캠퍼스내의 유세만을 허용함에 따라 7천 학우들의 참여를 위하여 「나도 한마디」라는 항을 포함시켜 게시판에 설치할 예정이다.

제3회 피아노 연구 발표회

「제3회 예·체능대학 피아노 연구발표회」가오늘부터 내일까지 오후 7시에 본교 소연주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예·체능대학 음악과 (회장 : 김치만) 가 주최하고 음악과 피아노연구회 (회장 : 이지영) 가 주최하는 이번 연구발표회는 20일「류오의 밤」, 21일 「스나타의 밤」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양일간 열릴 발표회 프로그램이다.

▲20일 「류오의 밤」 W·A. Mozart의 sonata K 448·1st : 송유성(음교·1), 2nd:이지연(음교·1) A. Arensky의Op15 Suite №1 1st : 최정은 (음교·2), 2nd : 황은경(음교·2) M. Ravel의 Rapsodie Espagnole 1st : 강병욱(음교·1)2nd : 권종수(음악과 대학원)

▲21일 「스나타의 밤」 L. V. Beethoven의 d minor, op. 31 №2 정은경(음교·3), L. V. Beethoven의 Eb major, op. 81a 황지현(음교·2), L. V. Beethoven의 F minor, op. 57 김인성 (음교 : 3)

국정감사 촉구 대회

감선위(가칭)대표와 국정감사 조사위원 면담

본교 국정감사 촉구 대회가 국정감사 추진 선각자 위원회 (감·선·위) 주최로 지난 18일 오후 2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감선위 대표들은 「비자금 20억설과 전두대학교 인수 흑막을 밝혀라」, 「도청사건과 구교래 폭력난동사건은 이사장과 총장이 관련되었는지 배후자를 밝혀라」, 「전주대는 입법재단의 부속대학이라 하면에 진상을 밝혀라」, 「도서정학금유품과 도서구입비 내막을 밝혀라」등 전주대학교의 의혹과 문제점을 플랭카드로 써붙였고, 국정조사단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국정감사단과 감선위대표와의 면담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도교육위원회·조사위원 휴게실에서 있었다.

국정감사위원 3명과 감선위대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 감선위대표는 전주대학교가 안고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하였다.

한편, 민주광장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취합 보고대회는 참여의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교육위원회 앞에서의 행사 역시 운영위원과 소수 학생만이 참여해 만성적인 학내 문제로 인한 전장인의 학내분제 관심도가 낮아졌음을 드러냈다.

도내 5개대학 친선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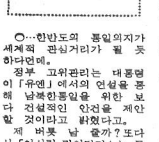
도내 본교를 비롯한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5개대학 친선 체육대회」가 오는 26일 우석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학간의 이해증진과 대학인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대한 체육부의 후원과 우석대학의 주최로 열린다.

본교에서는 체육부의 주관으로 남녀학생과 교직원 통 60여명이 축구, 배구, 씨름, 탁구, 400계주 등의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편 참가자격은 참가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재직중인 교직원 중 대한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자로 1인 1종목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암행어사 춘향이만 유혹



○…한반도의 통일의지가 세계적 관심거리가 될 듯하다면…

정부 고위관리는 대통령이 「유엔」에서의 연설을 통해 남북한통일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제 버릇 남 줄까? 또다시 「이시합 밀어넣라」는 무책임한 발표라면 아예 말어붙 필요도 없을 터.

○…국정감사가 제 갈길을 잃고 있다던데…

정부에 대한 당위성없는 질문과 정당간의 치열한 경쟁의식으로 감사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단 멤버가 번한도 족치려 출부한 알량어사가 춘향이 유혹하고 있는 꼴이구려.

○…경찰의 근무태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던데

검거권 발주법률에 의하면 경찰의 관문하나 없이 무사통과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것.

좌경·용공혐의 학생들 잡아들이느라 발주법률에게는 신경을 튼이 없었나?.

○…중앙 도서관 게시판 앞에 학형들의 발길이 잦이지 않고 있다던데.

게시판에 공고된 취업정보가 못학생들에게 손짚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학형님들 / 미리미리 대비해 취업에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려.

○…교통부는 연내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던데.

업체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을 통한 지원대책이 불가피하다나?

어르신네들 / 버릇의 갈을 빼먹기보다는 민명의 기부금으로 처리하심이 어떨런지.

○…선진농촌의 청사진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던데.

엄청난 농가부채 때문에 생활고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르신네들 / 이제 농민들에게도 확고한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 보심이 어떨런지.

○…공설서점에 나타난 이 모씨의 발언이 또 한번 여러 말리 / 의 도정이 인간습리를 연발케 한다던데.

불구의 몸을 딛고 일어선 장애자들의 울림피아 한장이라고.

이제 우린 장애자에 대한 선입견보다는 재활의 의지와 용기를 심어줄 박수갈채를 보냈어 어떨런지.

○…국제시장에서 국산제품 시장을장식하는 「수출부메랑 현상」이 여명기가주목한다던데

국내 TV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된 중국산 TV가 유럽시장에서 우리의 새로운 경쟁자로 대두되었다고.

약육강식의 무서운 시대에 발돋움만 기다리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설 땅은 정녕 어디메뇨.

구멍난 조세행정에 외국인도 「손에 손잡고」.

○…앞을 내다보지 않은 날림사례 한 가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의 보수비가 건설비의 3배나 된다니?

배보다 더 큰 배꼽은 수술로 제거하심이 상책인듯.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의 도정이 인간습리를 연발케 한다던데.

불구의 몸을 딛고 일어선 장애자들의 울림피아 한장이라고.

이제 우린 장애자에 대한 선입견보다는 재활의 의지와 용기를 심어줄 박수갈채를 보냈어 어떨런지.

○…국제시장에서국산제품시장을장식하는「수출부메랑현상」에업체가주목한다던데

국내 TV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된 중국산 TV가 유럽시장에서 우리의 새로운 경쟁자로 대두되었다고.

약육강식의 무서운 시대에 발돋움만 기다리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설 땅은 정녕 어디메뇨.

EBS 방송제

본교 교육방송국에서는 개국5주년기념「E·B·S방송제」를 오는 26일 오후2시 중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대학문화창조와 방송국홍보의 취지아래 열릴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어지는데 제1부에서는 개회사, 국민의례, 초대사 등이 있고 제2부에서는 기업보도, 기획, D·J쇼, 로그램, 드라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3부에서는 천장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제1회 창작각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팀에 한해서는 광주 K·B·S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학생 창작가요제」출전자격을 부여함 방송반출한의 자격도 주어진다고 한다.

써클동정

▲호우회 (회장 : 임기현) 에서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단합식을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치린산 야영에서 가질 예정이다.

▲C·C·C (회장 : 최한승) 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사상기를 배우기 위함 성서대학을 위주C·C·C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밀드골(회장 : 유성민)에서는 오는 22일 원광대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북지구 농구선수권 친선경기에 참가할 예정이다.

▲스카우트 (회장 : 민재기) 에서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창립8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를 겸포에서 가질 예정이다.

2부대체육대회

「2부대학 학장배 체육대회」가 오는 29일 오후 1시 사범대 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2부대 학생회 (회장 : 송규진) 에서 주최하고 2부대인의 단합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농구, 축구, 씨름과 교수와 학생간 참여하는 릴레이 등 6개종목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전수 (傳授)

점음과 젊음이 만나 역사의 맥을 잇는 이 자리.

격변하는 사회속에서도 민중의 가락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우리들의 청춘.

혼에서 혼으로 이어지는 민중가락의 전수속에서 역사는 민중과 함께 맥박치리라.

글 : 박상용 수습기자
사진 : 사진부

교수연구실 부재현상 심각

○… 한문탐구와 인격 도야의 연마 등을 …○
○…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올바른 사제 …○
○… 지강이 형성되었을 때에야 대학이 주 …○
○… 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바람을 형성 …○
○… 할 수 있다. 이는 형식적인 교육을 …○
○… 탈피하고 양보다는 질적인 교육에 …○
○… 전념하여 발전적인 교육의 장을 형 …○
○… 성하는 기본 토대인 것이다. …○

교수와 학생간에 공감대 형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양자간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내포되는지 살펴보고자, 먼저 교수 연구실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각 단과대학별, 요일별로 교수 연구실을 돌아보았을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만 열려있는 연구실이 눈에 많이 띄었고, 대체적인 상황은 강의시간이 있는 교수를 제외하고는 부재중인 교수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각 단과대학별로 월요일과 금요일 교수의 출근실태,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오전9시에 어느 정도의 교수가 연구실을 개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과대학별 교수의 재실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다. (강의시간은 부재에 포함안됨)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교수 연구실이 부재현상이 심했다. 출근율 저조의 주원 요인은 교수가 많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교수 연구실 부재현상으로 교수의 연구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학에서는 전문적인 학문연구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일간만의 출근율로는 대학의 연구기능이 자칫 소홀히 되어질 수도 있다. 물론, 교수 개인의 능률연구 등으로 다른 장소에서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이공대	예체능대
월요일	50%	90%	90%	60%	100%	80%
금요일	50%	70%	70%	40%	90%	80%
화요일	20%	60%	20%	30%	50%	40%
목요일	30%	50%	50%	20%	80%	20%

〈단대별 교수 개실현황〉

인증의 하나는 교수의 주거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현재, 교수의 주거지가 전라북도가 아닌고 서울이나 기타 타지방인 교수가 많았고, 이런 현상에 처해있는 교수가 3일이나 4일간만 출근하여 부재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아울러 부드러지는 현상은 수업거부가 심했던 단대일수록 교수의 부재가 심했다.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데에는 학생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 학생들이 학생본연의 역할인 학문연마를 망각, 수업시간이나 요일을 학생이나 교수의 임의대로 바꾸는 것 또한 많았다.

그리하여 3일간도는 4일간으로시간을줄여감의를 받고는 타요일에는 등교를하지않고있다

한편, 교직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교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5일이상 출근하여야 하며 박사학위과정 이수중인자는 4일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제12조에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본교 교수들의 출근실태를 볼때는 개인생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무시간 규정인 오후 5시까지 지켜지지않고 수업이 끝나는 즉시 퇴근하는 교수가 많았다.

두번째 문제점은 학생의 지도가 소홀히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비단 강의실 뿐만이 아니고 교수와의 직접적인 대화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대화의 단절로 교수와 학생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때로는 상한 충돌까지 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강사의 제도로 인해서 전임교수의 부담축소, 세분화·전문화된 교수활동, 예산감축의 장점 등을 있지만 연구실이 없어 학생들과의대화단절 요인이 되고있다

이상과 같이 교수연구실의 부재현상으로 인구미흡과 학생지도가 소홀히 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학교 당국이나 교수, 학생 모두가 상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은 이에따라 타지방에서 출퇴근하여 나타나는 교수부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수기숙사 건립과 함께 보다 발전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있도록 연구시설 확대, 연구비 지급, 또한 강좌시간 등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때에만이 교수와학생모 학문중모조성에 최선을 다할것이다

無冠雜記

우리모두에게 띄우는사연(I)

▲우리들의 한산한 캠퍼스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지난학기의 격렬한 흔적이 자리하고 있다.

수업거부, 스쿨버스 방화, 학교폐쇄로 이어졌던.

쭈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아서 그저 명하나 허공을 쳐어본다.

쭈재단인 영생재단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부도나기 직전까지 놓였었던 전주대. 그 뒤 신동아학원의 매년 10억원씩 투자, 외·공대신설, 복지시설 등 환상적인 공약을 내걸고 부채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원주대를 인수 하였다.

그러나 신학기부터 불어온 학원자율화 바람과 제반악습속 불이행, 구재단과 신재단 갈등 등으로 심하게 흔들리야만 했다. 제 오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시작되었던 데모의 열풍.

그 조그마한 불씨가 전주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말았다.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지치면 그만 두겠지」하는 지세로 우리는 그렇게 학교를 유지시켜 왔다. 그러한 무관심과 안일함이 오늘의 전주대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요즈음 현지는 전주대의 비리나, 의혹이니하는 문제도 꼭 이탈해함에서야 흔필뿐이 밝혀오는이유는 무엇인가? 학생회장선거가 끝나면 언제그랬냐는 식으로 다시권은을 되찾는 계절병꼭때모가 2학기때에는 그냥 지나간다는 보장은없다

머문다나 흘러에 거론되고있는 후보지원 수도 작년의 감흥이나 뵌다.

파연, 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무엇을 원해서 우리의 학교를 우리가 말하는식의 비정상적인 학교로 만들어 놓았는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좋고 모른다고 고개를 흘려도 좋다.

다만, 이학교가 다른사람의 학교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학교임을 결코 잊어서는안될것이다.

▲물고실다.

우리들의 지나쳤던 관심과 행동이 혐여나소영웅주의로 그쳐야만했을초라한 몸짓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베일속에 철저히 가리워진 거짓된 위선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들은 시대에 위멸어져 낙오된 소설속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

낙오자가 아니라고 해도 분명한 사실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의미를 포기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외쳐대는 부조리를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말자고 외쳐대고 싶은 것이다.

그만큼 우리들의가슴에는 커다란멍에가씌워졌다

아픈만큼 응어리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난도질해서는 안된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들이 물랐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단지 순수했던 의도와는 빗나가게 상황이 전개되었고 사회는 순수한 우리들을 결코 순수로 이끌지 못했다.

무엇때문에 요지경이 되었는지 어떠한 대안이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무조건적인 외침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다시 학생회장선거는 시작되었고, 그로인해서 학생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E)

天 眞 爛 漫

○…한반도의 통일의지가 세계적 관심거리가 될 듯하다던데…

정부 고위관리는 대통령이 「유엔」에서의 연설을 통해 남북한통일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제 버릇 남 줄까? 또다시 「이시합 밀어넣라」는 무책임한 발표라면 아예 말어붙 필요도 없을 터.

○…국정감사가 제 갈길을 잃고 있다던데…

정부에 대한 당위성없는 질문과 정당간의 치열한 경쟁의식으로 감사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단 멤버가 번한도 족치려 출부한 알량어사가 춘향이 유혹하고 있는 꼴이구려.

○…경찰의 근무태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던데

검거권 발주법률에 의하면 경찰의 관문하나 없이 무사통과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것.

좌경·용공혐의 학생들 잡아들이느라 발주법률에게는 신경을 튼이 없었나?.

○…중앙 도서관 게시판 앞에 학형들의 발길이 잦이지 않고 있다던데.

게시판에 공고된 취업정보가 못학생들에게 손짚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학형님들 / 미리미리 대비해 취업에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려.

○…교통부는 연내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던데.

업체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을 통한 지원대책이 불가피하다나?

어르신네들 / 버릇의 갈을 빼먹기보다는 민명의 기부금으로 처리하심이 어떨런지.

○…선진농촌의 청사진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던데.

엄청난 농가부채 때문에 생활고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르신네들 / 이제 농민들에게도 확고한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 보심이 어떨런지.

○…공설서점에 나타난 이 모씨의 발언이 또 한번 여러 말리 / 의 도정이 인간습리를 연발케 한다던데.

불구의 몸을 딛고 일어선 장애자들의 울림피아 한장이라고.

이제 우린 장애자에 대한 선입견보다는 재활의 의지와 용기를 심어줄 박수갈채를 보냈어 어떨런지.

○…국제시장에서국산제품시장을장식하는「수출부메랑현상」이업체가주목한다던데

국내 TV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된 중국산 TV가 유럽시장에서 우리의 새로운 경쟁자로 대두되었다고.

약육강식의 무서운 시대에 발돋움만 기다리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설 땅은 정녕 어디메뇨.

천 잠 게 시 판

천잠게시판은 각종 모임이나 아기자기한 메시지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천잠게시판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멋과 낭만을 찾아주는 약속 장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신문사(학생회관 306호, 구내전화 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0자 원고지 1매 게재시 1천원)

성 명 서

결단코 내릴수 없는 깃발이여!
언론자유, 학문·사상의 자유쟁취투쟁의 깃발이여!
오늘, 명백히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탄압함은 물론 내몽포 내민족과 하나되고자 하는 절대절명의 역사적 과제마저 거부하려는 일련의 반동적 군상들의 작태에 「호남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 (호대기협)」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아니, 정의와 진실은 간데없고 부정과 비리와 소아병적 탄압만이 날뛰는 시대상황에 분노보다는 슬픔이 앞선다. 주지하다시피 88년 상반기에는 조국통일의 신기원을 이루고자했던 애국민주세력의 움직임이 구체화됐던 시기였던만큼 전국민적으로 흥얼얼기도 고양됐었다.
그중에서도 청년학도의 6·10과 8·15회담성사 투쟁은 잊을수없는 것으로 기억될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7·7선언, 대공산권개방정책, 북한자료공개등의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러할때 오직 한민족, 한동포에 대한 그리움을 어찌 말로만 할수 있겠는가?
이에 전국대학신문들도 전국민적으로 고양된 통일열기들을 바로 수렴하고 필연적으로 제기된 북한사회 바로 알기라는 시대적 요구에 충실해야했다.
그런데 호남지역에서 북한사회를 한편적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시도했던「전대신문」과「원광대신문」에대한 탄압은 무엇인가? 전남대의 경우「주체사상 I·II」필자 김성칠학우 (독문·3) 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는가 하면 원광대도 「남북한경제비교」를 다루었다는 혐의로 필자가 수배중이다.
이번 압대한의 기회은 정부가 말하는 북한찬양·선전이 아닌 북한사회의 학술적분석 그자체임을이 분명하며 주체사상의 굴도 북한사회 이해의 열쇠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학술활동으로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갈망하며 그에대한 각계각층의 열망에 부응하려는 필연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공산권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정부가 한동포에대한 연금조차 금기시하는 것으로 소아병적탄압에 다름아니며 조국통일이라는 역사적 합법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학언론의 창달과 정론직필을 통한 올바른 시대정신의 반영을 생명으로하는 「호남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는 작금의 당국에의해 가해지고있는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김성칠학우를 즉각 신방합정과 수배학우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계속적으로 대학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자행된다면 이에 의연히 맞서 공동투쟁을 분사할것임을 밝힌다.

1988년 10월 10일

호남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

TO. HEXE!
HEXE와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길 바라면 먼 훗날에도 잊지 않는 사이길 간직하며….
—천잠골 어느 푼수—
P.S : 한 쌍의 커플이 못된걸 아쉬워 하며.

호찬이 형님께!
형님의 무한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소장님과 문 상경님의 건강을 멀리서 기원드리며 또한 벼파 어선 봉저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천잠골 등생이—

TO. 명구
아름다운 장미꽃 속에 장미 가시가 있네 장미가시의 의미는 무얼까?
그건 고독의 의미!
명구!
난 지금 외롭고 고독한 싸움중이야 도와주게. —친구 푼수—

이웃 시인과의 만남 ⑥ 소 재 호

자유적인 자유의 사회를 추구

蘇在浩시인과의 만남은 몹 감냄새 그윽한 완산고 미술실에서 이루어졌다. 蘇시인은 격식을 탈피하려는 미술실의 분위기만큼이나 소박하고 자유분방한 차림을 하고있었다

그는 1945년 해방동이로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고를 거쳐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하였고 1984년 『現代文學』에 구상선생의 추천으로 「장미」와 「遺言」이 실리면서 등단하였으며 현재 전주완산고에 십여년동안 재직하고 있는 성격이 온순한 인기좋은 국어선생님이다.

「가시이면서 장미에게/장미이면서 가시에게/왜냐고묻지 말을 걸 수 없는 머른키말로 하자—장미한—」

「이웃과 이웃에게 가만이 번져가는/거짓말같은 참말 하나/만들거나, 목숨짧긴 꽃의 말/미워하는 말 말고 일상의 말 말고/죽음이나, 허무니 그런 것도 말고/쭈은 뫼에 무덤까지 따라와 누웠다가/시말을 찾아 듣게 하는 말—遺言中—」

시인, 평화시에는 문화의 장식품에 불과할 뿐일지라도 민족의 수난시에는 그 수난을 헤쳐나가는 선구자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민족작가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있다. 직선제인 참여시보다는 겉으로는 서정시적 성격을 띄면서 내적으로 수업이 많은 침략을 당해온 우리 민족의 참담한 애환을 그려내는 시를 쓰고 있는 그는 상국, 고려, 이조시대의 외침에에 겪은 우리 민족의 시련층에서도 여인들의 화냥이 안스럽게만 생각한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落花岩에서」에잘 나타나 있다.

「雨期를 지나/내비를 날개끝에 서린 무지개/한 올씩 무너져 내리고/꽃잎 흩치던 바탕의 쉰 목소리/색깔의 휘날씨로 숨는다/가슴마다 다독다독 묻던 푸른 달/물살이 서면/강이 아니라 버탕이다/…/나비는 어느 하늘로 날아가는가/강가에 나가 작은 발목으로/강물을 붙혀 오는가/그리하여 꽃잎모집을 짜는가/…/落花岩에서中—」

그는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시는 민족의 예언자여야 하고 이상을 미래로 실현시켜야 하며 시의 과정은 시인에게 달려있으므로 시인은 시를 쓰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란 뜨거운 인간애의 승화이기 때문에 평소에 시가 항 지어지지 않을 때면 자신의 인간애가 부족한 탓으로 돌린단다.

「農夫가 쉬고/푸당진 벽 정소리만/옥신거리며, 헐겋 조가리 색색을/출렁이는 달/……/가다리며 뽀얀만큼/곡이 길어지면 庚川저수지/물고기가 떼죽음 하고/육자배기는 선술집에서 접시를 부수고/일어나서 걸어가는 농부의 등골대기는/거복동처럼 銅鐵처럼 운명의 심금을/이제 가슴속으로만 감돌이/요란하게 흐르는 달/六月은 활활타고/타서 재가되면/수목들은 몇 발을/기름을 헐떡이며 빨아들이는 달. —六月中—」

이 시는 가름의 해갈을 애타게 기다리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하에서의 농부의 심정을자신이 농부가 되어 잘 표현하였으며 「6월」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드러내기도하였다. 주체적으로 살펴보면 「꽃」대신 「기름」을 마셔야하는 가름때의 수목은 민주정의 가슴을 더듬지 못한다/…/무수한 그들의 생명은/숨진 핼밭으로/그들끼리의 말소리만 몇 수레째 실어가고/은빛 머리채 흔들며/그들끼리의 깃발로 번지던 감/무슨 말을 흔들며 감은 호르는가/바다에 이르는 길은 끝이 없고/내장속에서 일구다 쓰러지는/결결이 불탄 새 아침의 햇살이/갈잎 끝에 비틀거리자 갑면 일제히 종소리가 터지고/또 다른 갈증기가 상류에서 봇물로 내려오고 있다. —겉은 갈대—」

「귀절이게/갈은 다시 돌아오고/고적새처럼 돌아오고/도마뱀끼리 팔딱거리며/잦여져 나갔던 손발이 숲속에서/수많은 분신으로 살아나다/수레를 미는 천만의 눈빛. —석고상中—」

「겉은 강」과 「석고상」은 행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갈에서 민주화를 외치다 죽음으로 희생당한 광주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은 시로 「봇물」과 「고작대」로 민주화의 불꽃이 거세게 일리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

蘇시인은 지금, 평소에 좋아하는 도교적인 설경을 지닌 시집 한 권을 준비하고 있다. 왜 도교적인 설경의 시집을 준비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도교적이라는 말은 가장 인간적인 것을 가리키고 도교적인 사전는 「자유적인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가 쓴 「길」이라는 시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한 도교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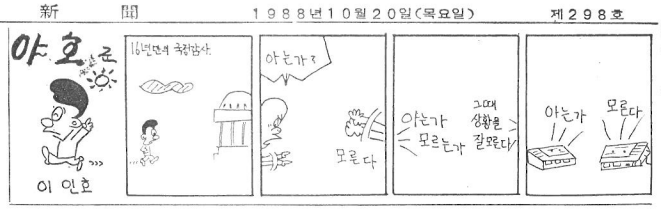
「길을 묻는 이에게/수은등 불빛 같은 고삭을 일러주고 나는 내 육신의 오관으로 익숙한 일상의 길을 호로지만 바다를 만나고부터는/아무데도 작은 나의 길 하나 낼 수가 없다/내는 초그만 시늉으로도/하늘에서 길을 가지만/바람을 만나고부터는/집 하나 걸어 둘 곳이 없다/—중교없는 지붕한 밤을/언제나/낮은 거리를 찾아/최실한 나의 길하나로/돌려가고 싶다. —길中—」

시인 대부분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는 밖에 표시인은 수긍을 얻을 수 있는 대답을 해주었다. 시는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먹었을때 감재해있던 예술적 감성이 되살아나 詩作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시인들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고 하면서 시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르쳐주고 싶다고 한다.

어느덧 밤은 깊어지고 돌아가는 시인의 뒷짐진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오늘 밤에는 기자도 한편의 시를 지어보고 싶은 충동이 절로 인다. 〈박민상기자〉

◀소 재 호 시인

야호 이인호



공간 한달간의 중간고사

어느덧 10월도 20일에 접어들어 늦가을 정취가 흠씬 느껴지는 날들이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더 쌀쌀해지기 전에 등산이다 캠핑이다 하며 가을을 즐기기에 한창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한가롭지가 못하다.

× × ×

어떤 학과의 경우, 지난 9월말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었다. 원래의 학사일정대로라면 10월 10일경부터 14일경까지 중간고사가 실시되었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이번 중간고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각 교수의 재량으로 시험일자가 정해졌다.

이번 학기의 개강은 다른 때보다 일 주일정도 앞당겨져 이루어졌지만 시설강의의 진도는 그 전보다 훨씬 부진한 편이다. 1학기때의 일정이었던 대동제가 학내사태로 인해 미루어져 이번 학기에 치루어졌고 추석과 을림픽을 앞아 거의 모든 학과가 입시 휴강을 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외에도 1학기에 실시되지 못한 다른 여러가지 계획들이 이번 학기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중간고사는 9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도대체 얼마나 가르쳤다고 또, 얼마나 배웠다고 시험을 치루는가? 시험은 배운 것에 대한 평가인 것인데 그 짧은 기간중만 배운 몇 페이지로 시험을 치루다니…

중간고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떤 학과는 10월 말까지 시험이 계속되기도 한다. 쉽게 말한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큰 한달을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달리고 있다는 말은 엄살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까지 겨첬던 시험과는 달리 일 주일 내내 도서관에 틀어박혀 교재와 참고서, 노트를 붙잡고 씨름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한 마디로 시험이 시험같지 않다는 말이다. 일 주일에 많아야 두 세과목만 치루게 되니 전처럼 주일내내 장장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범위가 좁은 것—난이도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도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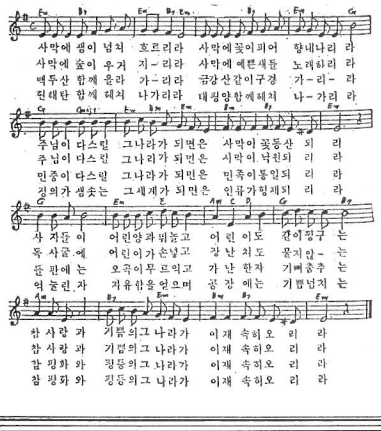
교수의 재량대로 실시되는 시험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험과 수업과의 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학점이 캠퍼스 생활의 전부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외치더라도 그것은 캠스의 생각일 뿐, 막상 시험이 닥치면 누구나 거기에 온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니 수업과 시험이 같은 날 있을 때 학생들이 수업을 평개치고 시험준비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험전에 큰 강의시간에는 강의실이 텅비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조차도 강의를 무시하고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일이 허다하다. 「모모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결과평가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까닭이리라.

× × ×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학교의 편리대로 그대로 강행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간에 이번 중간고사의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현정운영의 미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철저한 계획의 합리화·실속화는 비단 제단문제 같은 큰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이런한 작은 일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들꽃〈野花〉〉 —

노래한마당 사막에 샘이 넘쳐



여유속에 감사하며

서녘 중천에 반쯤 걸려있는 햇살의 중후함, 초병 허수아비의 강직한 풍채, 이런 대자연속에서 풍아일체를 느끼는 우리들은 감탄사를 연발한다. 원림이정(元亭到亭)의 오묘한 조화속에 가을은 풍요롭게 남기며 인간들은 그 풍요속에 간직된 자아의 베일을 벗기고 좀 더 알차고 성숙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

오래히 그렇듯이 가을에는 지나온 과정 속에 얼룩으로 남겨진 시냇과 욕심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겸허롯한 착각속에 빠져드는 천고마비의 계절.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수선이 마를 날이 없다는 소녀의 아우성. 가을은 착각과 낭만의 계절도 되는가 보다.

그러나 이 가을이 오면, 농부들은 겉푸른 대지에 뿌려놓았던 노동의 열매를 수확하고 방방곡곡의 댓가를 받는다. 모처럼 얼굴에 희색을 띤 흙겨울속에서 막걸리 잔은 희전목마처럼 돌고 돌아 주수한 육자배기와 가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거두기는 거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갈밭한 세상살이 중에서도 갈 하나를 남겨 놓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가을, 그 속에 과고드는 인간본연의 훈훈한 인정, 그러한 마음속에는 풍성함이 베수비어스 화산처럼 가득하리라.

풍요와 결실, 이웃과 동서, 사랑과 조화의 열매를 모두 따다가 가난으로 마음이 텅빈 사람들에게가져 주고 싶다

가을이 지나가는 소슬바람 소리에 머릿결을 흩날리며 동산 복판에 우뚝 서본다.

이 목은 있어가 떨어지지 않으면 새이라리는 돌아날 수 없으리라. 낡은 이파리를 모두 떨구고 훤하게 비어가는 가을 들녘속에서, 찬연히 사라지는 것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여유를 가지고 늘 감사의 따스한 손길로 살아가리라고 다짐을 하며 고사리 같은 작은 손가락으로 주먹을 쥐어 본다. 상들리에 불빛이 경쾌한 감사로 새롭게 장식될 미래를 찬란하게 비쳐주고 있었다.

가을은 여유와 감사의 계절이다는 분변의 진리를 되새기면서…. 천규태 지음

신간 안내

여성 해방론

조금안 옮김

본 번역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이며 그 계승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이 생전에 썼던 글들에서 여성문제인식의 단편들을 소개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적 여성문제 인식방법에 대해 독자들의 기본적인 이해를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여타의 문제에서도 그러하듯이 복잡한 내용과 형태를 취하는 여성문제에 대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독자의 틀을 제시한다.

〈동녘, P185. 값 2,400원〉

독일 이데올로기 I

칼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박재희 옮김

〈독일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전 저작인 〈경제학·철학초고〉와 〈신성가족〉의 연장으로 이 저작에서 비로소 역사 이해를 위한 유물론적 방법론이 사회구조및 역사발전의 일관된 체계로서 서술되었다.

이 책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사적 유물론을 두고 엥겔스는 후에 사회주의를 공상에서 과학으로 바꾸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한 이론이라고 말한바 있다.

〈청년사, P228, 값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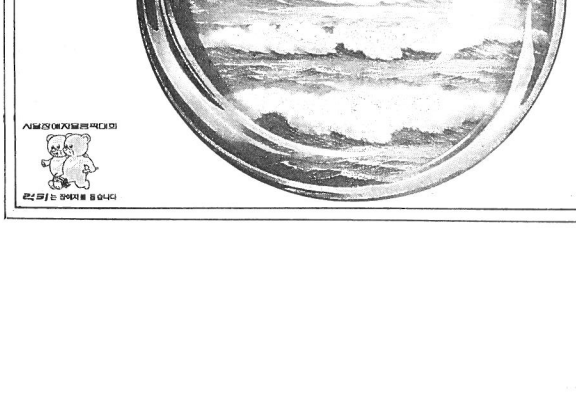
(금강서점 제공) 미국, 미국인

천규태 지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한국은 「양키 고 홈」을 외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다.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이 「양키 고 홈」을 외쳐대고 있고, 지나친 시장개방, 풍상입역 요구, 냉혈한 현실주의 때문에 우방으로써 희의를 느끼면서 반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메스 이메리카 꼬라 때문에 가리워져 있던 미국의 참모습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백문사, P306. 값3,000원〉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럭키가 이끄는 첨단화학의 물결—

新物質·新素材·新資源

"新物質의 창조"

무공해농약은 럭키가 거둔 값진 결실입니다.
다음 목표는 부작용 없는 제3세대 항생제—
럭키는 고부가가치의 유익한 신물질을 통하여
인류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新素材의 혁신"

종류도 다양한 럭키 엔지니어링 프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하는 고기능 신소재입니다.
반도체, 항공기, 우주선에도 쓰이는 첨단신소재!
럭키는 우주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新資源의 개발"

럭키의 화학기술과 유전공학의 만남은
동물성장 촉진제를 탄생시켰읍니다.
럭키는 이제, 새로운 식량자원과 미래의
대체에너지를 내다보고 있읍니다.

럭키